

# 기업의 출판지원 점차 다양해진다

## 학술전문도서 및 대형기획물 출판지원서 도서관 건립까지

기업들의 출판계 지원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사업에 관심을 보여왔던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는 출판활동에도 눈을 돌리면서 이른바 '기업출판'의 활성화에 남다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유수의 재벌기업들은 재단을 통한 사회복지사업과 학술지원사업 등에 주력하면서 자사에 대한 나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왔는데, 점차 그 사업내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출판지원사업에 뛰어 들고 있는 것이다.

### 연구제작비 인세지급 등 다양한 지원방식

지난 81년부터 학술연구지원을 시작한 이래 10년만에 2백권을 완간한 '대우학술총서'는 기업 출판지원사업의 대표적 예로 꼽힌다.

대우재단이 기금을 출연하고 민음사가 출판을 맡아, 연구지원 3년만인 83년 故김현교수(서울대)의 「문학사회학」을 제1권으로 펴낸 이 총서는 88년 1백권을 넘어섰고 올해 10월 이원식교수(일본近畿大)의 「조선통신사」를 출간함으로써 2백권을 돌파, 기념식을 갖기도 했다.

기업과 출판의 가장 성공적인 결합으로 평가받는 이 총서시리즈는 출판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선구적인 기획으로 환영받고 있는데, 기초학문인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영역에 걸쳐 연구제작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기획에서부터 집필, 제작에 이르는 출판의 전과정에 전문성을 기하고 있는 점도 이 총서의 특징.

재단측은 출판을 전제로 한 연구에 대해 건당 4백~5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출판대행계약을 한 민음사측에는 제작비지원 형태로 인문사회과학부문은 3백부, 자연과학부문은 4백부를 정가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총서간행에 참여한 연구자는 총 1천3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현재 기획단계에 있는 책만 해도 1천여권, 그리고 50건은 심사중이며 15건이 인쇄중이라고 한다. 출간된 책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 59권, 자연과학 76권, 연구번역 44권, 공동연구 18권, 기타 자료집 3권 등이다. 이들 중 특히 그동안 학술출판의 사각지대였던 자연과학부문에 집중지원, 기초과학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 점은 이 총서간행이 거둔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 기업들의 출판지원 형식은 대개

**제작비 부담, 인세지급,**

**세가지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든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이같은**

**기업의 출판지원은, 학계의 입장에서**

**전문적 연구성과를 수렴할 수 있는**

**출판물 간행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덜어준다는 점에서 크게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뿌리깊은 나무(대표 한창기)가 펴내는 '민중자서전' 시리즈를 지원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윈도 꾸준히 출판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우로 꼽힌다. 지난 81년부터 선보인 이 시리즈는 현재 3차분 5권(제11~15권)까지 나와 있는데, 미윈측은 89년부터 1질 5권당 6천~7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 민중자서전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自述傳記로 평생을 전통적인 생업과 예능에 종사한 '이름없는 노인'들의 구술을 토대로 그들이 구사하는 방언과 고어를 그대로 옮기는 등 소멸해가는 산업화 이전의 민중들의 삶과 언어를 복원시켜 놓은 소중한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자료수집과 녹음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취재비와 제작비 때문에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던 이 시리즈는 미윈측의 지원으로 2질 10권이 완간됐고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받을 계획이다. 또한 미윈측은 지원금의 대가로 기증받은 책들을 각급 학교와 도서관에 기증해왔다.

한편 뿌리깊은 나무는 '한반도의 슬픈소리(3장)'와 '산조전집'(9장)의 음반 및 해설집(전2권) 제작에 한국IBM의 제작지원을 받았고, 금년 중에 출간 예정인 「춘향가」 「홍부가」 「적벽가」 「심청가」 「수궁가」 등 판소리 다섯마당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아남산업의 경우는 고려대출판부와 손을 잡고 학술연구총서 발간에 주력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산학협동'의 모범적 예를 보여주는 고려대 학술연구총서는 73년부터 간행되기 시작, 강만길교수의 「조선후기 상공업자본의 발달」을 제1권으로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총36권을 출간한 대표적인 대학출판물로 꼽혀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책들.

대학측과는 별개인 완전독립체산체로 운영되며 작년에는 총서간행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그동안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여왔었다. 올해부터 매년 5천만원씩 4년간 제작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 총서는 올해안으로 1차분 5권이 간행될 예정인데, 「수경재배의 이론과 실제」(박권우, 김영식)가 첫 번째 결실로 출간됐고 일련의 자연과학서와 영문판 「한국시논고」(김치규)를 준비중이다. 지원금 내역은 해당과제 연구비로 1인당(고려대 교수에 한함) 5백만원씩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제작비로 충당된다.

현대그룹의 아산재단도 곧 출판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산재단은 지난 87년부터 소련·동구관련 연구사업 계획을 마련, 연구비 지원과 심포지움을 개최해왔는데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집성할 '아산연구총서'를 발행하기 위해 현재 출판사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방법은 저자인세 전액 부담과 도서관 구입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학술전문도서나 대형기획물에 집중돼

이밖에도 소규모이긴 하지만 동화은행, 대한화학기계, 금성컴퓨터 등이 자사의 업종과 관련된 전문도서나 논문집 간행에 출판비 일부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 에스콰이어(회장 이인표)의 경우는 직접적인 출판제작 지원은 아니지만, 적잖은 양의 도서를 소화해주는 도서관을 전국 각지에 설립, 지난 10월에 개관한 중국 길림성 '연길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 지금까지 8개 도서관을 설립·운영 중이며 곧 대전에 9번째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기업의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와같은 출판지원사업은 몇몇 기업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 차츰 다른 기업들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출판계에서는 든든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이들 기업출판을 일단 환영하고 있고, 학계 측에서도 그간 소정의 연구성과를 수렴할 수 있는 출판물 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을 들어 출판은 물론 연구비까지 지원되는 기업출판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도 지적된다. 우선 대우학술총서의 경우처럼 기초과학 분야에 걸친 폭넓은 지원의 예는 거의 없고 주로 자사의 성격에 맞는 특정 분야에 집중돼 지원영역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전문성을 기한 꼼꼼한 장기계획 아래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발성의 찬조금 형태가 대부분으로 아직 기업출판이 정착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들의 지원형식은 제작비부담, 인세지급, 기증본구입의 세가지 경우로 나뉘볼 수 있는데 출판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기왕의 출판지원의 폭을 좀더 넓혀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제까지 기업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책들이 워낙 시장성이 좁은 전문도서이기 때문에 초판을 소화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거운 전문도서에 대한 출판계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이들 기업의 지원사업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서 출혈출판을 감수했던 전문도서 출판사들과 함께 이들 기업출판은 또하나의 새로운 출판형태로 자리잡으면서 그 귀추를 주목케 한다.

—정소연 기자